

결과보고서 | Final Report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23년 10월 25일 (수) – 10월 27일 (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최/주관_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울디자인재단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_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23년 10월 25일 (수) — 10월 27일 (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최/주관



후원



목 차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05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08
행사 개요	10
Event Outline	12
프로그램	14
서울디자인투어	17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20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38
부록	
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회원도시 명단	67
2.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사명선언문(국/영문)	68
3. 2022 몬디아컬트 선언문(국/영문)	71
4.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정회원도시별 활동현황 보고 양식	85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1번 목표(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도시의 자원/경험/지식을 결집해 국제 수준의 도시간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하는 「UCCN 사명선언문」, △ 지역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의 참여 강화/동원을 통해 지역 차원의 공공정책에서 문화의 체계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몬디아컬트 2022 선언」을 근거로, UCCN은 창의성을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이해하는 도시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UCCN은 7개 창의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간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차원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개 도시가 UCC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서울시(디자인)와 이천시(공예와 민속예술)의 UCCN 가입을 시작으로, 전주(미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통영(음악), 부천(문학), 대구(음악), 원주(문학), 진주(공예와 민속예술), 김해(공예와 민속예술), 강릉(미식)까지 현재 총 12개 도시가 UCCN에 가입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UCCN을 구축해 이들 정회원도시와 더불어 국내 예비회원도시들을 관리/지원해왔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중심으로 개최된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 행사였다. 이천시와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UCCN에 가입한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서울디자인어워드 2023>, <서울디자인 2023> 등 서울시의 다양한 디자인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열렸다. 금번 국제포럼은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6일 개최되었다. 포럼 전날(10월 25일)에는 서울시의 디자인 자산을 돌아보는 <서울디자인투어>가, 포럼 다음날(10월 27일)에는 한국 UCCN 연례회의인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투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설립 배경과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창의성에 기반한 디자인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서울새활용 플라자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디자인을 가미한 ‘새활용’ 개념을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모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범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팎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한 행사였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및 도시의 연사들이 기조연설과 세션발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도시에 기반한 포용성 및 회복력 증대 방안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금번 포럼이 디자인 분야 창의도시인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만큼,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분야 특별세션이 포럼에 포함되었다.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은 한국 UCCN 정회원도시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진행된 도시별 창의활동을 공유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특히 금번 워크숍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모니터링 지표 개발연구’를 통해 고안한 창의도시 활동 모니터링 세부 지표를 국내 정회원도시에 처음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한국 UCCN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차원에서 창의도시(그리고 창의도시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 간 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창의도시별 우수사례를 홍보하면서 향후 창의도시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K-culture 등을 통해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창의도시가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디자인투어(10월 25일)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10월 26일)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10월 27일)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was launched in October 2004 as part of the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The UCCN aims to strengthen partnerships between cities that prioritize creativity as a strategic element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utlined in:

- Goal 11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ims to create inclusive, safe and resilient sustainable cities and settlements,
- the UCCN Mission Statement, which aims to promote city-city partnership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pooling the resources, experience and knowledge of cities, and
- the MONDIACULT 2022 Declaration, which aims to support the systematic anchoring of culture in public policy at the local level by strengthening and mobiliz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stakeholders and partners.

Focusing on seven creative fields (crafts and folk art, design, film, 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and music), the UCCN aim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y fostering cultural industries based on the cultural assets and creativity of each city, and encourag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intercity cooperation. As of December 2023, 350 cities in more than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embers of the UCCN.

Seoul (design) and Icheon (crafts and folk art) were the first c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join the UCCN, in 2010. The Republic of Korea now has a total of 12 UNESCO Creative Cities, including Jeonju (gastronomy), Gwangju (media arts), Busan (film), Tongyeong (music), Bucheon (literature), Daegu (music), Wonju (literature), Jinju (crafts and folk art), Gimhae (crafts and folk art), and Gangneung (gastronomy). In 2018,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stablished the Korean UCCN to support these member cities, as well as prospective member c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was held from October 25 to 27, 2023, at Dongdaemun Design Plaza (DDP)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and

sponsored by the city of Seoul, the first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o join the UCCN. The forum was held to coincide with the Seoul Design Awards 2023 and Seoul Design 2023, as well as other design-related events in the city. The main pillar of the event, the International Forum, was held on October 26 to discuss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eve of the International Forum (October 25), a Seoul Design Tour was held to explore Seoul's design assets, while on the day after the International Forum (October 27),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UCCN was held in the format of a Korea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Workshop.

The Seoul Design Tour provided an overview of the architecture of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nd the background to its development, offering a chance to reflect on the value and meaning of design based on creativity. Through the Seoul Recycling Plaza, participants were able to see Seoul's best practices in creating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by going beyond the recycling of resources and applying the concept of recycling to the city through design.

The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was organized in response to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the world has experienced since the coronavirus pandemic, noting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within and between cities to respond. Through keynote speeches, session presentations, and roundtables, speakers from a varie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ared city-based approaches to increasing inclusion and resilience, as well as examples of citize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forum was held in Seoul, a creative city for design, a special session on design was included in the forum with the them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through Design".

On the final day of the event, the 2023 Korea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Workshop was attended by officials and advisors from Korean UCCN member cities, who shared details of their creative activities during the year, discussed future plans, and proposed collaborations. The workshop also saw the debut of detailed indicators for monitoring activities by the Republic of Korea's Creative Cities that had been developed through a study conduct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indicators are designed to facilitate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Korean UCCN in the future.

The forum was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well as to promot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among Creative Cities, and those wishing to join the UCC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urthermore, as Korean culture gains global traction through the Korean wave, the forum provided a valuable forum for Korea's Creative Cities to promote and utilize Korea's cultural capacities on the global stage.

행사 개요

1. 행사명: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2.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 지자체의 국제 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창의도시들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한다.
-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증대를 통한 신한류 지속 확산에 기여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발굴하며 국제무대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창의도시들의 국제 네트워크 리더십 활동(의장 도시 활동 등)을 통해 국제무대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교국들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활용하며 가시화한다.
- 대한민국 지자체 브랜드 홍보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창의도시 우수 활동을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재)서울디자인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재)서울디자인재단
※ 후원: 서울특별시

4. 기간: 2023년 10월 25일 (수) - 10월 27일 (금) / 온라인(10월 26일) 및 오프라인 병행

5.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시 일대

6. 주제: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주요내용

- 10월 25일 (수): 서울디자인투어
- 10월 26일 (목):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 10월 27일 (금):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8. 참가자: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전문가,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500여 명

9. 진행언어: 한국어 및 영어(동시통역 제공)



국제포럼 오전 세션(DDP 아트홀1)



국제포럼 오후 세션(DDP 디자인홀)

Event Outline

1. Event Title: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2. Background / Purpose

-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mong local author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empowering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cultural field by activel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etworks and exchanges by Korean creative cities
- **Propelling the international spread of the new Korean Wave:** making full use of the Republic of Korea's cultural capacities by strengthening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dentifying local experts in relevant fields and supporting their activit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Korean creative cities by expanding their leadership of international network activities (chair city activities, etc.)
- **Raising awar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s brand by promoting Korea's local government brands:** raising awareness of South Korea's national brand by publicizing the outstanding activities of Korean creative citie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s

3. Hosting Organizations / Organize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Design Foundation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ul Design Foundation

※ Spons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4. Event Date: Wednesday, October 25, 2023 - Friday, October 27, 2023

5.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Seoul / Online (October 26 only)

6. Topic: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Main events

- October 25 (Wed): Seoul Design Tour
- October 26 (Thu):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ternational Forum
- October 27 (Fri): 2023 Korea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Workshop

8. Participants: Approximately 500 people, including experts,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from UNESCO Creative C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9. Languag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translation provided)

프로그램

2023. 10. 25 (수)	
서울디자인투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0:00-10:40	도슨트 투어
10:40-11:00	이동(DDP →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새활용플라자	
11:00-11:50	도슨트 투어
11:50-13:00	질의응답 후 오찬
13:00-13:30	이동(서울새활용플라자 →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3:30-17:00	<서울디자인 2023> 자유 관람
17:00-17:40	<서울디자인어워드 2023> 시상식 참석
17:40-18:00	<서울디자인 2023> 개막식 참석

2023. 10. 26 (목)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1(온/오프라인 진행)	
09:30-10:00	접수 및 단체사진 촬영
10:00-10:15	인사말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한경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환영사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최인규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대독)

<p>10:15-11:45</p>	<p>[기조연설] 포용과 안전을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가 나아가길</p> <p>포용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패트리샤 무어(무어디자인어소시에이츠 대표)</p> <p>문화적 포용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카를 슈토커(그라츠대학교 교수)</p> <p>팬데믹 이후 다시 생각하는 창의도시네트워크 한건수(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p>
<p>11:45-12:25</p>	<p>[세션1] 회복과 지속가능을 고민하는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p> <p>건강과 웰빙: 디자인도시 싱가포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던 림(디자인카운슬 싱가포르 대표)</p> <p>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디자인도시 서울 “즐거운 활력도시” 최인규(서울특별시 디자인 정책관)</p>
<p>12:25-13:50</p>	<p>휴식</p>
<p>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오프라인 진행)</p>	
<p>14:00-15:00</p>	<p>[세션2] 포용과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 “창의성으로 다름을 극복하다”</p> <p>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문화로 연대하는 사람들의 힘” 티타 라라사티(산업디자이너)</p> <p>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창의산업 분야 협력이 만들어내는 견고한 연대”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p> <p>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팬데믹을 넘어 안전한 연결을 추구하다” 유원준(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p>
<p>15:00-15:15</p>	<p>휴식</p>
<p>15:15-15:55</p>	<p>라운드테이블 및 질의응답 좌장: 홍경아(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인스티튜트 대표)</p>
<p>15:55-16:00</p>	<p>폐회</p>

2023. 10. 27 (금)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오프라인 진행)	
사회: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10:00-10:20	인사말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한경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서현숙 네트워크사업실장 대독)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환영사 한건수(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
10:20-10:35	2023년도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주요 활동현황 보고 서현숙(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장)
좌장: 한건수(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	
10:35-11:45	도시별 자가진단(1) 도시별 UCCN 활동 자가진단 결과 공유 및 자문위원 피드백
11:45-13:30	오찬 / 참석자 간 네트워킹 및 협의
13:30-14:50	도시별 자가진단(2) 도시별 UCCN 활동 자가진단 결과 공유 및 자문위원 피드백
14:50-15:05	휴식
사회: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15:05-15:55	현안 및 기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별 2024년도 핵심 사업계획 공유 • 2024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도시 결정 • 기타 현안 논의
15:55-16:00	마무리 및 폐회

서울디자인투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투어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의 첫 일정은 서울디자인투어로 시작되었다. 포럼 개최 도시이자, 디자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서울시의 디자인 자산을 견학하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 및 정회원도시/예비회원도시 담당자들을 비롯해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연사 및 담당자들, <서울디자인어워드 2023> 수상자 및 <서울디자인 2023> 초청인사 등 국내외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했다. 효율적인 투어 운영을 위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참가자를 구분된 조별로 각각 영어와 한국어 해설이 제공되었다.

투어의 첫 순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도슨트 투어로, 전문해설사가 DDP의 설계과정과 독특한 건축양식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DDP는 서울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DDP라는 명칭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daemun Desigh Plaza)의 약자인 동시에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는(Play)’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4년 3월 21일 개관한 이래 DDP에서는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디자인 트렌드의 시작점이자 문화 교류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DDP의 건축상 특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DDP는 여성 건축가로서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건축물이다. 하디드의 DDP 설계는 동대문이라는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를 기반으로, 미래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로운 풍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디드는 이른 새벽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실 새 없

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구현했다. 그 결과 DDP는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갖는 전통적 상징성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투어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로 이동했다. 2017년 9월, 서울시는 지구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도시, 서울로 거듭나고자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선언하고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재생 특구인 성동구 장안평에 설립했다.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23,265m²의 규모로 새활용 특화 시설 중에는 세계 최대로 평가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더 새롭게 활용하는 소재와 디자인, 제조, 유통을 한곳에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는 한편,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번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새활용’(upcycle)이라는 개념이 ‘재활용’(re-cycle)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활용’은 단순히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가공을 통해 쓰임의 기간을 연장하는 반면, ‘새활용’은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의 개념을 더함으로써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 말그대로 ‘업’(up)-사이클링(cycling)을 하는 것이다. 새활용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순우리말로써, 쓰임이 다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로운 용도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버려지는 자동차의 시트 가죽을 활용해 가죽 지갑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등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참가자들은 새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일 수 있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디자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비전 2030서울형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

서울비전 2030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서울형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
서울새활용플라자 비전	자원순환 혁신과 새활용 문화 창조의 허브
서울새활용플라자 미션	새활용과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시민실천 문화 확산 거점공간 운영

1. 새활용 문화 확산 - 새활용교육(학생중심 교과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키트 개발보급), 새활용축제(시민 참여 워크숍, 학술행사, 새활용수리소, 지구버스 운영 등)
2. 새활용 산업 지원 - 자원순환(소재은행 및 공구노동자 운영), 산업지원(입주기업 유통판로 개척 지원, 맞춤 컨설팅교육 지원 등)
3. 시설 유지,관리,운영 - 시설관리(보안, 미화, 주요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시민서비스(서플라이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

의류 + 식음 + 주거

워크샵 전시 이벤트 커뮤니티 유통

소재 리소스(소재) 공급 전문기관 네트워크 협력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공유·확산 제작 입주 스튜디오(공방) 전시, 교육 확대 클리닉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제품별 클리닉 운영)

가치 UP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비전과 미션(출처: www.seoulup.or.kr)

투어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관계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은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성공 척도 및 목표, △ 범세계적 소비주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새활용의 의의,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당면과제, 그리고 △ 새활용플라자의 건축과정에서 사용된 새활용 공정과정이라는 4가지 주안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성공 척도 및 목표는 새활용 문화 확산과 기업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있다. 현재 40개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있으며, 그 중 다수가 졸업해 ‘착한 기업’으로 활동 중에 있다. 특히 K-콘텐츠와의 접목을 통해 한류를 이끌어가는 스타들과 착한 기업 모두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생활한복 인기 브랜드인 단하주단은 인지, BTS와 같은 세계적인 K-POP 스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새활용이 범세계적인 소비주의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있어서는, 새활용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기 보다는 서울시를 ‘자원순환도시’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소재공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려진 상품에서 비롯된 소재를 어떻게 도시에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서울새활용플라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는, 새활용된 제품을 어떻게 도시와 시민의 일상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넷째,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새활용에 대한 인식 및 방법이 부족했었지만,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변 하수도 과학관이나 중고차, 전자제품 처리 시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클러스터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건축이 진행되었다.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인사말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서울 DDP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준비했기에 더욱 의미가 큼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관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자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활동의 취지이기도 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입니다. 이 목표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슬로건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Leave no one behind). 이 슬로건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2015년 이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경쟁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려 할 때, 혹시나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이들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8년 전인 2015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 어땠나 뒤돌아보면서 어깨의 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다행히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화, 미디어 등 다양한 창의문화가 모여 그간의 노력을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흔쾌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자인 창의도시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힘을 가진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도 참 마음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경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디자인재단을 비롯해, 바쁘신 일정에도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금번 행사를 빛내주신 국내외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창의성을 도시의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이해하는 도시들을 발굴하고, 이들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7개 창의분야, 즉 ‘공예와 민속에

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을 중심으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창의도시들 간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한 서울시까지 현재 총 11개 창의 도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개 창의분야 가입도시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창의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지원해 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8년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회원도시들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내 창의도시 우수사례를 국내외 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국제포럼과 국내 창의도시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창의도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내외 창의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도시가 속한 창의 분야 외에도 다른 창의 분야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시도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창의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번 포럼이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성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오세훈(서울특별시시장 / 최인규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대독)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은 2010년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가슴 벅찼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문화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서로 협력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회원도시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자인을 비롯해 창의적인 문화가 도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7개 문화분야 중 ‘디자인’ 창의 도시입니다. 그 동안 서울은 디자인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제 직함만으로도 서울이 도시정책에 있어서, 디자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디자이너인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서울시정에 디자인적 관점이 도입되어 디자인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에 디자인적 요소가 스며드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의 창의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동시에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새로운 도전이겠지만, 그게 바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서 서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네트워크 도시들과 서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나누며 배워 나간다면, 그 길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포용과 안전을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가 나아갈 길

포용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패트리샤 무어(무어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대표)



이번 포럼의 첫 기조연설자인 패트리샤 무어 대표는 26세 때 특수 분장을 하고 보철을 착용해 80세로 변장한 후, 3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노인 생활을 직접 체험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포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무어 대표는 “디자인 분야에서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불편을 공감하기 위해 이러한 경험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보다 나은 디자인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무어 대표의 기조연설은 참석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의 경력은 수많은 훌륭한 멘토들과 내가 맺어온 경이로운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해왔다. 이들 멘토 가운데 으뜸은 전설적인 디자이너 레이먼드 로위로, ‘공감 디자인’(empathy in design)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빈 캔버스라는 놀라운 선물을 내게 선사했고 그의 자서전 『아름답지 않은 것은 팔리지 않는다』를 통해 디자인이 지닌 중요한 본질을 상기시켜줬다. 우리의 안위를 위한 창작, 우리의 존재를 위한 대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은 디자인의 문제이다. 우리의 개인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소와 사물은 누군가의 대담한 시도와 상상, 행동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를 통틀어 창의적인 공동체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기에 대처하며, 모든 이들을 위해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잡는 이들이었다. 오늘의 답변은 반드시 내일의 질문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흥미롭거나 중요한 시기는 없었고 혁신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관을 고취하는 데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현생에서 우리 모두가 디자인을 통한 친절함, 평등, 사랑의 힘으로 세계에 공존하는 잔인함, 불균형, 증오라는 도전과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냉혹한 인식으로부터 얻었다. ‘용기를 내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문화적 포용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카를 슈토커(그라츠대학교 교수)



카를 슈토커 교수는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창의력을 통한 사회/생태학/경제/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사례로서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기조연설에서 슈토커 교수는 이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례, 예컨대 ‘디자인 클리닉’(Design Clinic), ‘혁명 심포지엄’(Revolution Symposium), ‘실험적 우드크래프트 디자인 캠프’(Woodcraft Design Camp) 등을 제시했다. 그라츠 시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치/과학/경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창의적 인재, 디자이너, 활동가, 시민들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 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탈산업 소비자 사회에서는 여전히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 간 전 국민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가치의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띄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제모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세계로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제1세계와 제2세계, 제3세계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비판적이고, 증가하는 환경 파괴에 대해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세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최전선에,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내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생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같은 성공적인 노력의 사례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스 스티리아(Creative Industries Styria)와 디자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라츠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20여년 동안 창의력은 환경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다.”

팬데믹 이후 다시 생각하는 창의도시네트워크

한건수(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



한건수 자문위원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지역/국가 간 단절되고 격리된 기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사회 안에 연대의 씨앗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의적 수단을 제공해 주었음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이 이룬 성과들을 소개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창의도시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 문화 분야에서 2020년 한해만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문화 분야 부가가치총액이 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화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드러내 준 결과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팬데믹 이후 문화 영역의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과 함께 이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문화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지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술 활용 지원, 섹터 간 협력과 참여,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문화정책의 도입과 재구성, 보다 회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의 미래를 구축하는 토대로서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함을 제안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도시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 보장 및 새로운 확장(청년),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과 학습 보장, 지역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역량 및 가능성 확인,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 등 도시마다 고유한 정책을 펼쳤다.”

[세션1]

회복과 지속가능을 고민하는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건강과 웰빙: 디자인 도시 싱가포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던 림(디자인카운슬 싱가포르 대표)



던림대표는 싱가포르의 생애 주기별 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림 대표는 공항에서 여행자가 20분 안에 모든 항공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과정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싱가포르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림 대표는 돌봄 체계에 필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자인을 통해 기술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교차점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돌봄 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이너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림 대표는 현 시대가 마주한 긴급한 도전과제로서 ‘고령화’를 짚으면서,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돌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돌봄을 위한 디자인을 ‘정책, 장소, 제품’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적용했다. 예컨대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 위한 가구 및 유모차, 슬라이드길 등에 있어 최적화된 디자인을 고안하고, 어디에서나 정원이 있는 도시로 느껴지도록 초목을 조성했으며, 항상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디자인 도시 서울 “즐거운 활력 도시”

최인규(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책관은 디자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와 노력을 토대로, 서울시가 디자인 도시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디자인 분야 정책인 <디자인서울 1.0>을 시작으로, 서울을 디자인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최 정책관은 당시 서울이 교통 체증이 심한 건설 중심의 딱딱한 도시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디자인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디자인서울 2.0>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가 ‘2021년 디자인서울’과 ‘2022년 디자인서울 2.0’을 통해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배려, 시민의 창의적인 배려, 글로벌 스탠다드와 서울 아이덴티티의 공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이 걷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울둘레길과 다양한 공원 등이 조성되어 걷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스카이라인, 야간 풍경, 옥외 간판 등에 대한 디자인 차원의 고민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라이트 광화문 축제와 미디어파사드 축제 등을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든 서울시의 행정에 디자인을 적용해 혁신을 이루고 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세션2]

포용과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 “창의성으로 다름을 극복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문화로 연대하는 사람들의 힘”

티타 라라사티(산업디자이너)

* 온라인 영상 발표 진행



반둥은 인도네시아의 디자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다. 산업 디자이너이자, 반둥창조경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티타 라라사티 위원은 포용과 안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반둥이 디자인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라라사티 위원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기점으로서 1955년 <반둥 컨퍼런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반둥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온 사례들을 망라하면서 창의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

<반둥 컨퍼런스>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9개국이 참가한 국제 회의로, ‘경제, 문화, 인권, 평화, 국제 파트너십’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라사티 위원은 반둥이 2015년부터 디자인 분야 창의도시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진행된 포럼과 네트워크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사회적 혁신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반둥의 우수 사례로서 청소년 프로젝트인 ‘어반 게임즈’(Urban Games), 청년 프로젝트인 ‘패션 빌리지랩’(Fashion Village Lab)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미래 세대들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제도적 토대에 기반해 연대하고 협력하며 도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창의산업 분야 협력이 만들어내는 견고한 연대”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김이석 교수는 영화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부산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95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이 영화 도시로서 성장해 온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설명했다. 특히 1996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 국제 영화제>가 부산 영화 산업의 발전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상영된 영화가 169편에 달했고,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함께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 국제 영화제>는 한국 최초의 국제 영화제이자, 이후 영화 도시로서 부산이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동력이 되었다. 또한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김 교수는 <부산 국제 영화제>의 성공 요인으로 △ 한국 영화관의 발전, △ 영화 관람객의 증가, △ ‘아시아 영화의 창’으로서 영화제의 위상, 그리고 △ 효율적인 공적, 사적 파트너십의 구축 등 4가지를 꼽았다. 더불어 단순히 ‘영화제 주최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산이 영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부산 시네마 센터, 부산 비주얼 산업 센터, 부산 아시아 영화 스쿨 등 다양한 영화 관련 기반시설을 갖춘으로써, 부산이 효과적으로 영화 창의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팬데믹을 넘어 안전한 연결을 추구하다”

유원준(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



유원준 교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네트워크’ 개념의 정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메타버스를 통한 창의도시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창의도시네트워크’라는 명칭에서 ‘창의적인’(creative)이라는 수식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창의도시네트워크가 ‘폐쇄적인’(closed)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네트워크’(network)의 정의에 집중해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해안을 제시했다.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가 연결된 것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허브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노드와 허브가 되지 못한 도시들을 통해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의 접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작동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함을 지적하면서,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아닌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한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함을 역설했다. 메타버스를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유 교수는 데리다의 ‘인공적 현재성’과 ‘현실적 가상성’의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

홍경아(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인스티튜트 대표 / 좌장)

카를 슈토커(그라츠대학교 교수)

던 림(디자인카운슬 싱가포르 대표)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유원준(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라운드테이블은 포럼의 기초 연설을 맡았던 카를 슈토커 교수와 세션발표자인 던 림 대표, 김이석 교수, 유원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인 홍경아 대표가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앞서 진행된 기초연설 및 세션발표에서 소개된 창의도시 사례들을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별로 좌장과의 대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통찰력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카를 슈토커 교수는 그라츠의 사례와 접목해, 디자인을 도시 개발의 톨로 활용함으로써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라츠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환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 결과 6개 대학에 많은 대학생들이 유입함에 따라 오늘날의 ‘젊은 그라츠’가 만들어졌다.



슈토커 교수는 산업/교육/기술/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던 림 대표는 돌봄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도시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 디자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혜안을 제시했다. 림 대표는 디자인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단기간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5년 또는 10년이라는 충분한 기

간이 확보된다면 돌봄을 위한 디자인이 사회 안에서 창출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김이석 교수는 창의산업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공유했다. 김 교수는 영화제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된 합의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도시 이해관계자들 간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쳐지지 않았고, 그 결과 행정적으로 영화제를 뒷받침할 수 있고 독립성을 보유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김 교수는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시민사회의 이의 제기를 통한 정화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 국제 영화제>가 오늘날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원준 교수는 세션발표에서 제안했던,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킹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 교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7가지 창의 분야 콘텐츠들이 국경 없이 작동할 수 있음에도, ‘도시’라는 물리적 현실을 근거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실무진과 관계자들이 대중적인 네트워킹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역할을 위해 보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안에 지부를 건설함으로써 7개 분야간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패널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리고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 중인 도시의 실무진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했다. 카를 슈토커 교수는 창의도시 실무자들이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진정성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던 림 대표는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가 되고자 하는가”



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해당 도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봄으로써 도시 내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교수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이 마치 입학증서와 같은 개념이기에, ‘창의도시’라는 명칭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얼마나 그 명칭에 걸맞게 도시가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준 교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 증명서가 아닌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창의도시네트워크 자체에서도 도시 선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창의도시 가입 분야 관련 콘텐츠 사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앙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의도시네트워크 구성 주체가 창의활동이 활발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네트워크 전반의 수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인사말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유병채입니다.

먼저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부천, 대구, 원주, 진주, 김해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대표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유엔에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전 세계인구 절반 이상의 삶의 터전이며, 유네스코는 일찍이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디자인, 공예와 민속예술, 문학, 영화, 음악, 미디어 아트, 미식 7개 분야에서 걸쳐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개 창의 분야 가입도시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적 역량이 고도로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문화의 힘’이 각 지역에 꽃피울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창의도시 간의 교류 협력을 아우르는 매개체가 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경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장 대독)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먼저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국내 자문위원 및 정회원도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내 정회원도시 워크숍은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금번 국내 워크숍을 포함해 국제포럼 행사 전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천시와 함께 국내 첫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도시인 서울에서 금번 워크숍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서울디자인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 창의도시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를 결성한지도 어느덧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디자인 분야 창의도시인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개의 국내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개 창의 분야 모두에 가입도시들을 보유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창의도시 활동

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창의도시별 활동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 국내,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창의도시들이 창의산업을 통한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의인재 육성, 시민사회 기여, 지방정부의 협력 및 발전에 있어 창의도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주도 하의 업무 추진체계 속에서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창의도시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은 국내 창의도시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창의활동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활동계획, 추진,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이 연구 결과물인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국내 정회원도시별 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국내 창의도시 활동의 발전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정회원도시 관계자분들의 의견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도시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의도시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도시 내 다양한 구성원들 간 합의와 참여, 공동의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동력을 이끌어내는 주체는 바로 도시 내 창의산업 담당자분들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국내 워크숍이 창의도시 담당자분들에게 참신한 시각과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을 서울 DDP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행사가 많은 10월임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들을 모시고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의도시 중 ‘디자인 도시’인 서울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디자인 사업들이 이 기간에 한데 모아 펼쳐지기 때문에 꼭 지금! 여러분을 DDP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서울디자인 2023>, <서울디자인어워드>, 그 외 많은 전시와 행사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담았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서울의 디자인을 즐기실 수 있도록 초청 프로그램을 고심해 구성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에 짧은 일정에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던 일정으로 꾸려 보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한 가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분야에 계신 회원들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직원들 되도록 워크숍에 많이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한건수(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디자인)와 이천시(공예와 민속예술)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창의도시는 7개 분야 11개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국내 추천도시인 강릉시가 미식 도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창의도시들이 주목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국가 단위의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연례 워크숍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창의도시 사업의 핵심은 도시 간 협업과 연대이고, 그 출발은 국내 도시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화와 창의성을 토대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거대 담론인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실질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창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정책입니다. 창의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장기적 전망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체평가 지표를 논의합니다. 창의도시로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 나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는 서울시는 한국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천시와 함께 최초로 창의도시에 가입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한 도시입니다. 디자인 도시로서 창의산업의 발전에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개최해 주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의도시 사무국을 운영하며 창의도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이경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한국 창의도시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개요



1. 일시: 2023. 10. 27 (금) 10:00-16:00

2.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4. 주요내용

- 2023년도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주요 활동현황 보고
- 도시별 활동현황 및 자가진단 결과 공유
- 2024년도 도시별 핵심 사업계획 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등

5. 참석자: 국내 10개 정회원도시 관계자(원주시 불참),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당 직원 등 32명

구분	도시 (창의 분야)	성명	소속	직책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	실장
		권용덕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	사무관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		박경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	교수
		홍대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현숙	네트워크사업실	실장
		오혜재	네트워크사업실	선임전문관
		노승민	네트워크사업실	인턴
정회원도시 관계자	서울 (디자인)	구태희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협력팀	주무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엄아영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대외협력팀	팀장
		배인혜		책임
		남상훈		책임
		윤여한		주임
	이천 (공예와 민속예술)	성동해	문화예술과 교류협력팀	주무관

정회원도시 관계자	전주 (미식)	정정연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팀장
		변문선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주무관
	광주 (미디어아트)	김하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학예연구사
	부산 (영화)	유지영	부산광역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정명진	(재)영화의전당 영화창의도시팀	팀장
		전인룡		차장
		강혜지		담당자
		이재현		담당자
	통영 (음악)	신지훈	(재)통영국제음악재단	대리
	부천 (문학)	김선경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	팀장
		정서영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	주무관
	대구 (음악)	김다정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정병훈	진주시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민경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	주임
	김해 (공예와 민속예술)	김현숙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문화산업팀장
		장우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주무관

2023년도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주요 활동현황 보고

서현숙(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장)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제)

1.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가입 준비 지원

- ※ 국내 추천도시 대상(강릉 / 미식 분야) 2023년도 신규 UCCN 가입 준비 지원
 -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심사 준비 및 발전전략 워크숍> 참석(2.1-2)
 - 국내 추천도시(강릉) 지지서한 송부(6.12) 및 영문 가입신청서 제출(6.23) 지원
 - 추천도시(강릉)의 2023년도 UCCN 가입 최종 결과 발표(10월말-11월초)
 - ※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명단('23.10월 기준 / 7개 분야 11개 도시)

순서	도시	가입년도	활동 분야
1	서울	2010	디자인
2	이천	2010	공예와 민속예술
3	전주	2012	미식
4	광주	2014	미디어아트
5	부산	2014	영화
6	통영	2015	음악
7	부천	2017	문학
8	대구	2017	음악
9	원주	2019	문학
10	진주	2019	공예와 민속예술
11	김해	2021	공예와 민속예술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제)

2.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연례회의 지원

- ※ 연례회의 개요
 - 회의명: 2023년 제15회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연례총회(XV UCCN Annual Conference)
 - 일시: 2023. 10. 23 14:00-17:00 (유럽시간 기준 / 온라인 진행)
 - ※ 터키 정부의 사정으로 제15회 UCCN 연례총회가 기존 일정(9. 11-15 / 이스탄불)대로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 일정으로 변경
 - ※ 동 연례회의 전 7개 창의분야별 의장/부의장 도시 대상으로 2024년 제16회 연례총회 (포르투갈 브라가) 준비회의 진행(2023. 10. 6)
 - ☞ 16회 연례총회 주제: 미래의 10년을 위한 청년 참여 촉진(Bringing youth to the table for the next decade)
 - 주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는 열쇠(The key to unlocking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 주요내용: 주제별 세션, 7개 창의분야 네트워크별 활동 보고, 2024년 제16회 연례총회 개최도시 발표, 2025년 제17회 연례회의 개최 후보도시(부산 포함 6곳) 발표 등
- ※ 국내 UCCN 회원도시 대상으로 연례총회 일정 변경사항 전달, 회의 참여 관련 협력/지원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제)

3. 기타 협력/지원

- ✿ <2025년 제17회 UCCN 연례총회> 부산 유치 지지서한 발송(7.21)
-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대상 UCCN 설문조사 참여(9.11)
- ✿ 국내 창의도시 대상 유네스코 신규 그래픽 표준 및 로고 사용 시범기한 공지 및 신규 창의도시 로고 파일 제출 요청(9.8 / 11.30까지 수렴 예정)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내)

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 일시/장소: 2023. 10. 27 /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 2023 UCCN 국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 ✿ 참석자: 국내 11개 정회원도시 관계자, 한국 UCCN 자문위원 등 50여 명
- ✿ 주요내용
 - 2023년도 UCCN 국내 주요 활동현황 보고
 - 도시별 자가진단 결과 발표(UCCN 성과지표 활용과 연계) 및 자문위원 피드백
 - 현안 및 기타 논의

2. 국내 정회원도시 활동 협력/지원

- ✿ 대구(음악 분야)
 - 2023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11.9-10) 명칭후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최 20주년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재개관 10주년 기념 사무총장 축하 영상 메시지 송부
- ✿ 광주(미디어아트 분야)
 - 2023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포럼(2023. 10. 4-7) 명칭후원 및 사무총장 축하 영상 메시지 송부
- ✿ 부천(문학 분야)
 - 제23회 전국 청소년 이야기대회(2023. 9. 2-3) 명칭후원 및 사무총장 명의 상장 발급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내)

3. 국내 예비회원도시 관리

☛ 2022년도 예비회원도시 활동 경과 보고서 수렴(2.22-3.6)

- 기존 예비회원도시 10곳 중 2곳(안산, 춘천) 활동 종료

☛ 한국 UCCN 예비회원도시 설명회 개최(8.31)

- 한국 UCCN 자문위원 및 예비회원도시(강릉, 경주, 안동, 인천, 청주) 관계자 등 참석
- UCCN 소개 및 가입절차 설명, 예비회원도시-자문위원회 간 컨설팅 및 향후 지원/협력 방안 논의 등

☛ 청주(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 청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청주 공예 심포지엄>(2023. 7. 28 및 11. 16, 2024. 3. 21) 및 <청주 공예비엔날레 학술회의>(2023. 9. 1) 명칭후원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내)

☛ 예비회원도시 신규 가입: 인천(1.19), 밀양(9.18)

※ 국내 유네스코 예비회원도시 명단('23.10월 기준 / 총 9개 도시)

도시	가입년도	활동 분야	비고
강릉	2021	미식	국내 추천도시 선정(2022), UCCN 가입 신청(2023)
성남	2021	미디어아트	국내 추천도시 선정(2022)
청주	2019	공예와 민속예술	
안동	2019	공예와 민속예술	
경주	2019	공예와 민속예술	
순천	2020	문학	
울산	2020	음악	
인천	2023	디자인	
밀양	2023	공예와 민속예술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내)

4.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지침」 개정

✿ 개정일자: 2023. 6. 1

✿ 개정사유

- 기 지침의 오류(조항과 내용의 불합치) 정정 및 추가조치 사항 반영
-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회(2023. 3. 14) 논의결과 반영

✿ 주요 개정사항

- 정회원도시/예비회원도시 관련 지침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정회원 모니터링 보고서를 한위에도 사본 제출, 회원도시 유형별 역할 및 임무 등)
- 자문위원회 관련 지침 수정(운영 주체 변경, 자문위원수 범위 변경, 자문위원 연임제한 규정 삭제 등)
- 심사 관련 비밀유지 및 청탁금지 서약서 추가

✿ 주요 연혁

시기	연혁
2018. 1. 19.	한국 UCCN 설립 및 「한국 UCCN 운영지침」 제정
2019. 10. 16.	「한국 UCCN 운영지침」 1차 개정
2023. 6. 1.	「한국 UCCN 운영지침」 2차 개정

20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및 지원(국내)

5.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자문위원회 운영

✿ 한국 UCCN 자문위원회의 개최(3.14)

-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운영 지침」 개정 검토
-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기획
-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신규 자문위원 위촉
- 국내 예비회원도시 관리 방안 논의

✿ 한국 UCCN 자문위원 추가 위촉(2인 / '23년 10월 기준 위원 총 9명)

- 홍대순 광운대 경영대학원 교수(3.20 / 아트경영 분야)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8.17 / 문화산업 분야)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국제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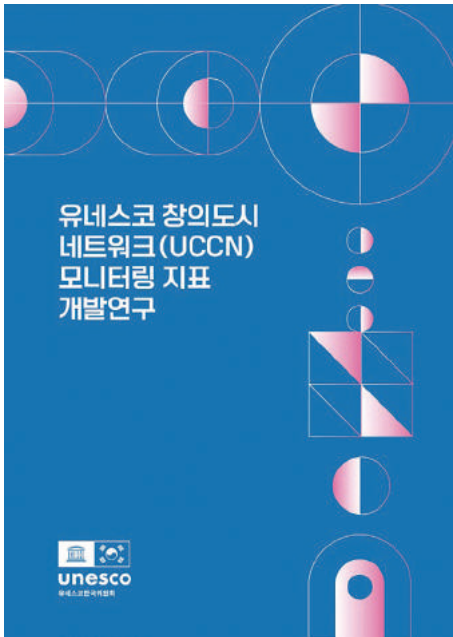
- ✿ 행사명: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국제포럼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 부대행사: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 ✿ 일시/장소: 10.25-27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시 일대
-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디자인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 후원: 서울특별시
- ✿ 대상: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전문가·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
- ✿ 진행언어: 한국어, 영어(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 주제: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디자인 분야 특별세션 주제: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 ✿ 프로그램: 서울디자인투어(10.25), UCCN 국제포럼(10.26), 한국 UCCN 워크숍(10.27)



도시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활동 자가진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을 구축해 국내 정회원 도시의 활동을 관리/지원해왔다.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내 유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UCCN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회원도시(국내 UCCN 최종 가입도시)와 예비회원도시(국내 UCCN 가입 준비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들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내외 차원에서 국내 창의도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한국 차원에서 그간의 창의도시별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창의도시 실무자 간담회에서 UCCN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창의도시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일부 도시에서 자체 지표를 작성/활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식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 중지가 모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모니터링 지표 개발연구’를 진행해 UCCN 모니터링 세부지표를 개발했으며, 금번 워크숍에서는 이 지표를 처음으로 국내 정회원도시별 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UCCN 자문위원 및 정회원도시 관계자들 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워크숍 개최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11개 정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 내용을 반영한 활동현황 보고 양식을 공유해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워크숍에서 도시별 담당자가 사전 제출한 해당 도시 활동현황 보고 자료를 토대로 8분 이내로 설명했다. 도시별 주요 활동현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표 순서대로 명기했으며, 워크숍에 불참한 원주시의 경우 사전 제출한 현황 보고자료 내용 반영).

1. 이천(2010년 가입 /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이천시청 문화예술과 교류협력팀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2023 중국 징더전국제도자박람회 & 유네스코 창의도시 포럼’ 대표단 파견 및 전시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협력을 통해 이천시의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 계획(공예대전, 포럼 등)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담당자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 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2. 전주(2013년 가입 / 미식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없음
- 담당기관 및 부서: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음식관광팀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전주음식 명인 추가 지정(2023. 2)
 - 전주음식 학술 자료화 및 포럼 개최(2023. 9. 8)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확대 발굴(계속)
 - 전주음식 학술 자료화(계속)
 - 창의도시 간 교류 협력 사업 확대(계속)
 -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포럼 추진(신규)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 각 창의도시 대표 축제에 창의도시 홍보관 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 광주(2014년 가입 / 미디어아트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없음
- 담당기관 및 부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G.MAP 웹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미디어아트 국제 교류 전시 진행
 - 미디어아트 국제 포럼 진행
 -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국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참석 및 전시 참여 예정
 - 유네스코 총회 및 미디어아트 분과 회의 참석
 - 미디어아트 교류 교육 사업 진행
 - 네트워크 활동지 및 관련 소식 업데이트 공유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음악도시 대구와 협업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포럼 때 공연, 미디어파사드전 협력 국제 공모 / 국제미디어파사드 전시 공동 개최

4. 부산(2014년 가입, 영화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없음
- 담당기관 및 부서: 부산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총괄)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영화 창의도시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시민 참여 지원 프로젝트 ‘마을영화만들기’, ‘장애인영화만들기’ 추진
 - 영화도시 부산의 입지 강화를 위한 2025년도 UCCN 연례총회 유치 도전
- 2024년도 주요활동 계획
 - (브랜드 확립)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를 위해 브랜드화한 전략적 홍보
 - (네트워크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도시간 협력 강화
 - (문화자원 발굴)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해 공동 성장 동력 모색
 - (시민참여 확대) 시민 참여를 통한 창의적 도시발전 추진
 - (자문위원 참여) 영화, 국제 등 분야별 정책가,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한 혁신

5. 통영(2015년 가입, 음악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통영시청 문화예술과(총괄), 통영국제음악재단(실무)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통영 홈페이지 리뉴얼
 -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국외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간 교류공연 지속 추진
 - 국내 UCCN 교류 및 협력 강화

6. 부천(2017년 가입, 문학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2018. 4. 9. 제정)
- 담당기관 및 부서: 부천시청 문화산업전략과(총괄)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주요 성과
 - △ 부천의 국제 문학 기반 세계적 창의도시 구현
 - △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인프라 마련
 - △ UCCN 기반 국제 협력 사업 참여

- 도전과제
 - △ 문학창의도시인 부천의 인지도 및 시민 이해도 강화
 - △ 국내외 UCCN 협력 확대 및 협업사업 추진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2023년 운영 중인 부천의 창의도시 사업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 부천레지던시: 해외 문학창의도시 작가와 국내 작가 1:1 교류
 - 프랑스 앙굴렘, 캐나다 퀘벡 만화 기반 국제협력 추진

7. 대구(2017년 가입, 음악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2023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 개최
 - 국내외 창의도시 교류협력
 -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내외 인지도 제고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글로벌 창의도시 포럼 개최, 국내외 창의도시간 예술인 교류 지원(계속)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민축제, 행사 홍보부스 참가
 - 2024 이탈리아 문화수도 페사로-코리아위크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관” 참가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차년도에 개최될 이탈리아 페사로-코리아 위크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관”에 국내 창의도시 중 희망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 함께 참가하기를 제안함(개최날짜 및 행사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페사로 시와 협의중)

8. 원주(2019년 가입, 문학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총괄 및 실무)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원주 공공외교 서포터즈 운영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레지던시 운영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읽기 프로그램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 원주시 문학의 달 행사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2023년 성과 및 도전과제 내용(계속)

- 원주 역사 인물 기반 스토리 콘텐츠화
- 법정 문화도시와 연계해 창의도시 신규사업 플랫폼 기반 구축(공모 후 재정지원)
- 소설 『토지』 완간 30주년 기념행사

9. 진주시 (2019년 가입,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진주시청 문화예술과(총괄),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실무)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2023진주 전통공예비엔날레
 - 2023 제8회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
 -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제4호 발간 추진
 - 진주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 진주실크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 민속예술 공연제작 지원사업 운영
 - 전통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민속예술보급 추진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2024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 2024 제9회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
 -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제5호 발간 추진
 - 진주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 예술창작사업 운영
 - 민속예술 보급 추진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언: 융복합 예술창작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 타 창의도시와의 협의 요청 (사업내용 및 수행가능 방안 논의)

10. 김해시(2021년 가입,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 김해시청 문화예술과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해외 UCCN 교류협력 발판 마련
 - 김해시가 주도하는 도자공예 문화교류 워크숍 개최로 김해시 도자문화 홍보
 -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사업 개최, 지역 작가의 국제적인 성장 발판 마련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
 - 문화콘텐츠 플랫폼 ‘가꿈’ 온오프라인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2024 우리 시 *메가이벤트 연계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김해’ 정체성 강화 (*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전국체전 개최)
 - 국내외 창의도시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 ART IN GIMHAE ‘가꿈 아트마켓’
 - ‘진영복합휴게소’ 공예품 판매점 입점
 - 김해오광대전수교육관 건립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지역대표 축제 및 행사, 창의도시 주요 사업 현황 등 사전 공유해 네트워크 협력 강화

11. 서울시(2010년 가입, 디자인 분야)

-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재)서울디자인재단 위탁협약 통보(2010. 10. 26)
 -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 담당기관 및 부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진흥본부 디자인전략실 대외협력팀
-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 디자인 문화 선도
 - △ 디자인뮤지엄 기획 전시
 - △ 서울디자인어워드
 - △ 디자인라이브러리 운영
 - 디자인 문화 확산
 - △ 서울라이트
 - △ 디자인 사업 연구개발
 - △ 서울디자인리포터
 - △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 △ 서울디자인 자산
 -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 디자인 산업 강화
 - △ 서울디자인 2023, DDP 디자인 페어
 - △ 우수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
 -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 디지털 디자인 산업 활성화

-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디자인 산업 육성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략 목표와 사업 방향을 시대성에 맞춰 전환하고, 주요 사업을 기획/추진하고자 함
-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안: 각각의 창의도시로서의 역할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정례화/정착되어야 함

현안 및 기타 논의

도시별 창의도시 활동 현황 공유 이후, 한국 UCCN 자문위원 및 정회원도시 관계자들은 한국 UCCN 활동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금번 논의는 크게 도시 활동의 평가/모니터링 시기와 내용, 그리고 정회원도시들 간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 활동 모니터링과 관련해 도시 담당자들은 창의도시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4년 단위로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는 정회원도시 활동 모니터링 자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니터링 자료의 방향성 및 제출 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니터링 자료의 내용 면에서도 유네스코 및 국내 제출용 자료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유네스코 몬디아컬트 지표에 있는 기후변화 및 팬데믹 등의 위기사항 대처 관련 지표들이 국내 모니터링 지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 ‘창의 추진성, 시민문화 향유성, 시민의 주체성’ 등 도시 내 창의활동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지표 관련 구체적인 사례들의 DB화 및 정회원도시 대상 공유, △ 도시별 지표 우선순위 표기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안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UCCN 연례 총회 결정문 번역/배포, 별도 설명회 개최, 도시별 활동 일정 사전 공유 및 협력 제안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정회원도시들 간 소통 및 협력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도시 관계자들이 매년 상반기 중에 도시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프라인이 어려우면 Zoom 등의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도시별 활동 계획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상호 소통 및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더불어 도시별 업무 관계자들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현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통합 소통 플랫폼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년도 한국 UCCN 워크숍 개최 도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고,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인 광주가 개최 도시로 잠정 결정되었다.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의 역할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Fostering
Resilience,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23년 10월 25일 (수) — 10월 27일 (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울디자인재단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부록

[부록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회원도시 명단

회원구분	도시명	분야	가입년도	
			한국	국제
정회원도시 (12개)	서울	디자인	2018	2010
	이천	공예와 민속예술	2018	2010
	전주	미식	2018	2012
	광주	미디어아트	2018	2014
	부산	영화	2018	2014
	통영	음악	2018	2015
	부천	문학	2018	2017
	대구	음악	2018	2017
	원주	문학	2018	2019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8	2019
	김해	공예와 민속예술	2018	2021
	강릉	미식	2021	2023
예비회원도시 (8개)	안동	공예와 민속예술	2019	
	청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9	
	경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9	
	순천	문학	2020	
	울산	음악	2020	
	성남	미디어아트	2021	
	강릉	미식	2021	
	인천	디자인	2023	
	밀양	공예와 민속예술	2023	

* 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엔 ‘세계 도시의 날’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미식 분야 창의도시로 최종 승인되었다.

[부록2]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사명선언문(국/영문)

* 국문의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비공식 번역본임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명선언문

사명

2004년에 출범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측면에서 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들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도시들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성과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며,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강화하면서 도시 발전계획에 문화를 통합시킬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동 네트워크는 유엔의 정책 기초,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7개 창의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를 다룬다.

목표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들 간 국제협력 강화
- 특히 공공/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와 연계된 파트너십을 통해, 창의성을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만들고자 회원 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의 고무·향상
- 문화 활동/상품/서비스의 창조, 생산, 유통 및 확산 강화
- 창의성 및 혁신의 중심지 개발 및 문화 분야 창작자/전문가를 위한 기회 확대
- 특히 소외 또는 취약 집단/개인을 위한 문화 상품/서비스의 향유, 문화생활의 접근성 및 참여 개선
- 지역 발전 전략/계획 내 문화와 창의성을 완전히 통합

활동 영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목표는 특히 다음의 활동 영역을 통해 회원도시 및 국제 차원에서 구현된다.

-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
- 공공/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파트너십 및 이니셔티브
- 전문적인 예술 관련 교류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 창의도시들의 경험에 대한 학습, 연구 및 평가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 소통 및 인식 제고 활동

MISSION STATEMENT

Mission

Launched in 2004,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nd among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regard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y joining the Network, cities acknowledge their commitment to sharing best practices, developing partnerships that promote creativity and the cultural industrie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integrating culture in urban development plans.

The Network further commits to support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s, particularly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covers seven creative fields: *Crafts and Folk Art, Design, Film, 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and Music.*

Objectives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aims to:

-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 stimulate and enhance initiatives led by member cities to make creativity an essential component of urban development, notably through partnerships involv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vil society;
- strengthen the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 develop hub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broaden opportunities for creators and professionals in the cultural sector;
- improve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s well as the enjoyment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notably for marginalized or vulnerable groups and individuals;
- fully integrate culture and creativity into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Areas of Action

The objectives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are implemented both at the level of the member cities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notably through the following areas of action:

- sharing experiences,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 pilot projects, partnerships and initiatives associat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vil society;
- professional and artistic exchange programmes and networks;
- studies, research and evaluations on the experience of the Creative Cities;
- policies and measur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communication and awareness raising activities.

[부록3]

2022 몬디아컬트 선언문(국/영문)

* 국문의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비공식 번역본임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회의 - 몬디아컬트 2022

(2022년 9월 28-30일, 멕시코시티)

최종 선언문

우리 유네스코 회원국 문화부장관들은 2022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회의(이하 ‘세계문화정책회의’) - 몬디아컬트 2022>에서 만났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와 1998년 <스톡홀름 회의>에 이어 40년 만에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급하고 복잡한 현 시대의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이 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우리의 공동 우선사항을 통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변혁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제시한다.

I. 서문

1.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정책회의>와 1998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문화를 “사회나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정서적 특징의 집합으로,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신념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한 개념적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는, 특히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처럼 문화다양성을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인류에게 필요한 교류,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유네스코의 규범 조치에 있어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2.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과 관련된 현 시대의 도전과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는 특히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무력 충돌, 자연 재해, 전염병, 무질서한 도시화 및 지속불가능한 개발 양상에 따른 극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빈곤 증가, 기본권 침해, 이주 및 이동 가속화, 디지털 격차 등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3.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지지한다. 이는 회복력, 사회적 포용 및 결속, 환경 보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힘이자, 다문화 인류 사회의 기초를

지원하는 인간 중심 및 특정 맥락에 맞는 개발을 촉진한다.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갱신/확대하고, 다국어 사용과 평화의 문화를 장려하며, 문화 외교 등의 방식으로 국가 안팎의 대화와 연대를 가능케 하는 문화의 힘 또한 **재확인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체제 안에서 문화 관련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19년과 2020년에 열린 유네스코 문화부장관 회의를 비롯해, 국제/지역/지역간 차원의 여러 정치/경제/사회 분야 포럼 안에서의 역사적 통합을 통해 이러한 문화의 힘은 더욱 상기되었다.

4. 특히 범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문화 생태계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면서 문화 부문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사회적/성별 격차,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등의 구조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특히 여성에 있어 문화적 가치 사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가, 문화 전문가, 실무자 및 공동체의 예술적 자유/지위/생계를 비롯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
5. 문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문화가 파괴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목적을 위해 문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안해, 인권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을 거듭 **재확인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문화유산의 (비)의도적 파괴, 문화재 불법 거래의 가속화, 차별 등을 통한 인권 및 문화권 침해, 문화적 관행의 붕괴, 그리고 문화 활동가/기관/사이트/시장의 취약성 악화를 낳으며, 사람들 간 연결고리이자 소득원인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범세계적인 문화다양성 침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특히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 「유네스코 문화유산 의도적 파괴에 관한 선언」(2003),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1989),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권고」(2011), 「박물관 및 소장품의 보호 및 진흥과 이들의 다양성 및 사회에서의 역할에 관한 권고」(2015), 「세계 저작권 협약」(1952),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 및 2가지 관련 프로토콜(1954, 1999), 「문화재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을 포함해 지난 수십 년간 문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문화의 보존/보호/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온 유네스코의 표준 설정 체계(선언, 권고, 협약)의 광범위한 발전을 **인정한다**.
7.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 토착민, 장애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간기구(IGO),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된 포용적/참여적 문화 정책을 가능케 하는, 공공 정책 내 문화 횡단성 증진을 위한 대전환을 **적극 환영한다**. 이러한 대전환은 현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문화 정책들 안에서 사회/경제/환경 차원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이들 계층의 잠재력과 창의적 역량,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십분 활용하게 할 것이다.
8. 모두를 위한 문화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한 전망을 열어주고, 유산의 지식/문서화/보존/보호/진흥/관리를 강화하며,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디지털 혁신이 사회, 특히 문화 부문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과 문화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흐름에 있어 범세계적인 불균형 강화, 온라인 문화다양성/언어다양성의 저하 등 증가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위험은 인공 지능 시스템, 알고리즘의 불충분한 규제,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예술가/문화전문가/실무자의 불공평한 보수 문제와 더불어, 특히 글로벌 문화 플랫폼의 불평등한 집중으로 인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국제 교류의 불평등 심화와 관련되어 있다.

II. 행동 촉구

9. 민족 정체성의 기초이자 모든 문화 분야 유네스코 협약/권고/선언의 기본 원칙으로서 인간 존엄성과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분리될 수 없으며, 지식 체계, 관행, 사물, 문화 유적지와 더불어 언어다양성이 포함된 문화유산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대신해, 모든 지역에 걸쳐 유산의 형평성, 지리적 균형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윤리적 의무로서 유/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 부문 전체의 보존/보호/진흥,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다원성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차원으로서 문화/창의 산업의 촉진 보장을 위한 개인/집단의 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존중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발전과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의 조성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의 힘을 구축한다.
10. 특히 (i) 윤리/사회/경제 차원의 필수 요소로서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및 문화 생활 참여 관련 혜택 지원, (ii) 예술가/문화전문가/실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증대와 함께, 지적 재산 강화 등을 통한 이들의 결집 촉진 및 지위 유지, (iii) 예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및 진흥, (iv) 언어다양성 및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보호 및 촉진, (v) 토착민의 문화 표현을 비롯해, 문화 정체성 및 유산에 대한 국민과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공공 정책 체계 구현, (vi) 관련 주민과의 협의 및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포함해 문화재의 보호/반환/복원 촉진을 위한 노력 확대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여성, 청소년, 어린이, 토착민, 아프리카계 사람들, 장애인, 취약계층 관련 사안이 포함된 불평등 문제를 경감시키고자, 디지털 환경을 포함해 문화유산부터 문화/창의 부문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집단의 문화권을 존중/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
11. 국제/(소)지역/국가/지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유엔 기금/프로그램의 정책 안에서 개발 전략/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공공 정책 내 문화의 체계적인 정착을 지지한다. 이는 교육, (특히 여성 및 청년을 위한) 고용 건강, 정서적 웰빙에서 빈곤 감소,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광, 무역 및 수송에 이르기까지 회복성, 사회적 포용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조력 주체이자 동인인 동시에, 상황에 적합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유지시켜 준다.
12. 관련 유네스코 문화 협약/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현 시대 도전과제에 대한 문화 정책을 강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를 비롯한 국가/지역 행위자부터 문화 기관, 시민사회, 전문 네트워크 및 전문가, 관련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 관련 유네스코 기관 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이들의 변혁적 잠재력을 결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부문의 새로운 요구 및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국가 예산 할당을 증대한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 자금 조달을 보존/강화할 것을 더욱 촉구한다.

13. (i) 학습 성과의 확대 및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 평생학습 및 인공지능을 통한 문화다양성, 다언어주의, 예술교육 및 디지털 문해 이해, (ii) 지식 전달과 관련해 사회 모든 분야의 기여를 평가하는 등 공식/비형식/무형식 교육 내 문화의 체계적인 통합 촉진, (iii) 필요한 기술 적응 촉진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공공 정책 관련 구조적 투자를 통한 문화 부문 내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지원, (iv) 박물관/미술관, 창의 허브,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문화 기관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투자를 위해 문화유산, 역사, 전통 지식을 포괄하는, 상황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문화-교육 간 시너지 효과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문화 부문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정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지원한다.

14. 특히 극심한 기후 현상 및 자연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적 표현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하고, 무력 충돌 상황에서 문화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나 문화재 또는 그 주변 환경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 및 2가지 관련 프로토콜(1954, 1999), 「문화재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뿐만 아니라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협약」(1995),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2003) 등 관련 분야 국제법의 규범 및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이는 국가의 보호 노력, 국제 연대 및 국가 회복 전략을 지원하고자 문화 분야 유네스코 협약과 관련된 모든 국제기관 및 조직, 기존의 기술/재정 메커니즘을 결집시키는 등, 관련 유엔 결의안들을 토대로 조직 범죄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서는 데 윤리적/안보적 필수 사항인 긴급 상황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15. 문화유산과 창의성이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과 표현의 보호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전통 및 토착 지식 시스템을 통해 기후 행동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과 창의성을 기후 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기상기구(W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메커니즘(2020) 등 관련 국제기구, 프레임워크 및 메커니즘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권고」(2011), 「박물관 및 소장품의 보호 및 진흥과 이들의 다양성 및 사회에서의 역할에 관한 권고」(2015) 등 문화 분야 유네스코 협약/권고의 틀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수중/자연 유산, 문화/창의 산업, 생계 등이 포함된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문화 부문 전반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전략을 개발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면서, 문화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회원국 간 대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6.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및 관련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인터폴(INTERPOL),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예술시장 등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 불법 거래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기록에 남긴다. 또한 (i) 불법 인신매매가 사람들의 기억, 정체성,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옹호 및 행동 강화, (ii) 국내 법률 내 형사 또는 행정 제재 도입 장려, (iii) 모든 국가 내 국가/지역 역량 개발 촉진, (iv) 특히 문화재 원산지 증명서의 성문화 강화,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물건의 취득 방지와 관련해 박물관/미술관 및 개인 수집가를 위한 미술 시장 행위자들과의 효과적이고 더 많은 협력 증진, (v)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문화재의 온라인 거래 증가 고려 및 인식 제고 지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참여/동원/조정 보장을 통해 유네스코가 범세계적 규모로 대응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17. 사람들과 공동체가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육성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로서, 그리고 문화유산의 사회적 결속과 세대 간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반출된 재산을 포함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의 보호 하에 원소유국 및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범위 밖의 국가로 반환/복원하기 위한 개방적/포괄적인 국제 대화를 촉구한다. 또한 원산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또는 불법 점유 시 해당 문화재 반환을 위해,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추진 정부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유네스코가 기존 법적 틀이나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특히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 기관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문화 차원에서 민감한 접근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현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 해당 국가를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이처럼 증가하는 불법 문화재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고 미술 시장 내 행위자, 박물관/미술관 및 개인 수집가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계획을 제안하면서, 「문화재 거래자를 위한 국제윤리강령」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문화적 자산의 불법 거래에 맞서 싸우는 선도적인 유엔 기구가 될 것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및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회원국 내 창의 경제를 지원하고자,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특히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성을 촉진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잘 규제하고 참여 대화에 연계시키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협약 이행 운영지침」(2017), 그리고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2021)의 문화 관련 조항들을 수립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문화 부문의 디지털 변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청한다. 이는 (i) 문화 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ii) 특히 민간 부문,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노동기구(ILO) 등 관련 NGO/IGO에서부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구조적 대화를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보급/소비를 위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실행 계획의 설계/개발/구현, (iii)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및 남남/북남 협력 촉진 등을 통해 문화 분야 고용,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호/진흥/디지털화/목록화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문화부 장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멕시코에서 만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고 이를 추진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닌 글로벌 공약으로서 문화를 인식하는 강화된 다자주의에

전념하고, 유네스코가 다음과 같이 문화에 대한 국제적/전문적인 임무 및 규범 도구/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의 공동 이행을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19. 문화가 세계적 공공재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2030년 이후 개발 의제에 문화를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이 참여해 글로벌 공약으로서 우리 사회에 문화가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는 자리를 열어주고,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마음에 평화를 구축”한다는 유네스코 창립 사명을 반영해 2024년 예정된 유엔 미래 정상회담에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옹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20. 범세계적 공약으로서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공동의 의제」 보고서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창립 75주년 기념 선언문의 이행을 촉진하고, 미래의 문화/공공 정책 및 전략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문화 및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모니터링/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메커니즘 관련 조정/강화/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와 함께 모든 차원에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개발하고,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데이터 및 기존 지표를 바탕으로, 특히 심분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내 문화 분야 전체 규범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한 정기 보고서의 틀 안에서 4년 단위로 『국제 문화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21. 문화 분야의 진전/영향/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매우 중시하며, 이에 따라 모든 관련 행위자들의 건설적/포괄적 대화를 통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가 2025년부터 적절한 기존 절차 및 메커니즘 안에서 4년 단위의 국제문화정책포럼 개최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포럼은 국가 간 다자적 행동/협력/연대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틀 안에서 유네스코의 전략적 업무 라인에 기여하며, 『국제 문화정책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될 것이다.
22. 마지막으로 조직의 중기 전략 및 프로그램/예산의 틀에서 동 선언문 조항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유네스코 회원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유지하며, 이행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회원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구체적인 관련 조치 및 기간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28-30 September 2022, Mexico City)

Final Declaration

We, the Ministers of Culture of the Member States of UNESCO, met at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in Mexico City, from 28 to 30 September 2022, 40 years after the historic 1982 MONDIACULT Conference and 24 years after the 1998 Stockholm Conference – both convened by UNESCO – to share our vision of the future of cultural policies and t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ace of the urgent and complex contemporary challenges in our multicultural societies, and to this end we adopt the present Declaration, which integrates our common priorities and outlines a forward-looking agenda that fully harnesses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cultu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 Preamble

1. *Reaffirm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Declarations adopted at the UNESCO World Conferences on Cultural Policies held in Mexico in 1982 and Stockholm in 1998, as well as their conceptual advance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culture as a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which] includes not only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which laid the 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UNESCO’s normative action, notably the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cknowledging cultural diversity as “a source of exchange, innovation and creativity, [...] which is as necessary for humankind as biodiversity is for nature”;
2. *Concerned by* the impact of contemporary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global landscape, as well as multiple, protracted and multidimensional crises – linked in particular to the dramatic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armed conflicts, natural hazards, pandemics, uncontrolled urbanisation and unsustainable development patterns – which lead notably to increased poverty, setbacks in fundamental rights, accelerated migrations and mobility, as well as exacerbated inequalities, including as regards the digital divide;
3. *Commending* the new impetus given to the role of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stability, as a force for resilience,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nd fostering a human-centred and context-specific development, which supports the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human societies, *while also reaffirming* the power of culture to renew and broad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promote multilingualism and a culture of peace, and enable dialogue and solidarity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cluding through cultural diplomacy, as reflected by the growing engagement towards cultu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at the country level, and further recalled by the releva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nd related reports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UNESCO Meetings of Ministers of Culture (2019, 2020), as well as the historical integration of culture in sever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ra at the global, regional and interregional levels;

4. *Expressing our concern* about the continued vulnerability of the cultural sector, particularly in the wake of the global COVID-19 crisis, which has profoundly disrupted the cultural ecosystem as a whole – exacerbating structural fragilities and inequalities, including social and gender gaps and unequal access to culture, as well as restrictions on fundamental freedoms, notably artistic freedom, status and livelihoods of artists, cultural professionals,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particularly for women, in all areas of the cultural value chain;
5. *Further reaffirming* the imperativ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in view of the increasing threats to culture and its use for purposes which are likely to expose it to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s, which result in the intentional or collater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acceleration of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the violation of human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rough discrimination, the disruption of living cultural practices, and exacerbated vulnerability of cultural actors, institutions, sites and markets, thereby undermining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e as a link between peoples and a source of income, while at the same time eroding cultural diversity on a global scale;
6. *Acknowledging* the evolution of the broad spectrum of UNESCO's standard-setting architecture of Declarations, Recommendat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ver the past decades, which have progressively broadened the scope of culture and provide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ulture in all its dimension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and the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89),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Historic Urban Landscapes (2011) an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2015);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 the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 and its two Protocols (1954 and 1999),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7. *Welcoming favourably* the growing shift towards enhanced transversality of culture in public policies, enabling inter alia inclusive and participatory cultural policies, involving a multiplicity of actors – governments, local author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private sector and communities - including women, youth, children, indigenous peopl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vulnerable groups, thus expanding the voices of diverse segments of society and taking full advantage of their potential and creative capacities and all resources available to them, to act a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levels,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cultural policies, as well as the commitments set out in the present Declaration;
8. *Underlining* the structural impac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on societies and the 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which affect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access to cultural goods and services, while opening up prospects for broadening access to culture for all, enhancing the knowledge, documentation, conservation, safeguarding, promo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and stimulat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as well as *expressing our concerns* about the challenges it poses, increasing risks such as the reinforced global imbalance of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the impoverishment of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online, link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f algorithms, unequal access to culture, the unfair remuneration of artists, cultural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deepened inequalities in the global exchang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particular due to the unequal concentration of global cultural platforms;

II. Call to Action

9.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s the foundation of the identity of peoples and the founding principle of all UNESCO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Declar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all human rights, embodied in cultural heritage – including knowledge

systems, practices, objects and cultural sites – as well as in linguistic diversity; and in this perspective, *we reiterate*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on behalf of future generations, to ensure the conservati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the entire cultural sector including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s an ethical imperative, ensuring greater equity, geographical balance and representativity of heritage across all region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s fundamental dimensions to sustain cultural diversity and pluralism, the respect of which constitutes, today more than ever, a ferment of peace and a forc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build a more sustainable world;

10. *We commit*, to this effect,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respect and exercise of all human rights, in particular cultural rights – individual and collective – in all areas of culture, from cultural heritage to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clud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order to build a more just and equitable world, and reduce inequalities, including for women, youth, children, indigenous peoples, people of African desc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vulnerable groups, in particular by (i) supporting inclusive access to culture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its benefits as an ethical, social and economic imperative; (ii) strengthening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artists, cultural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facilitating their mobility and upholding their status, including by rei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iii) protecting and promoting artistic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iv) protecting and foster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s well as linguistic diversity; (v) implementing legal and public policy frameworks that uphold the rights of peoples and communities to their cultural identity and heritage, including the expressions of the cultures of indigenous peoples; and (vi) expanding efforts to promote the protection,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cluding in consultation with the populations concerned and with thei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11. *We advocate* for a systemic anchoring of culture in public policies, through the adaptation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framework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sub-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as well as within policies of other relevant UN funds and programmes, as an enabler and driver of resilience, social inclusion and economic growth from education, employment – especially for women and youth –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to poverty reduction, gender equa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ourism, trade and transport, while also sustaining context-relevant model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2. *We call* for the strengthening and adaptation of our cultural policies to contemporary challenges,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ESCO Cultur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notably by engaging a more systemic participation

of a diversity of stakeholders, from national and local actors, including through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to cultu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professional networks and experts, as well as concerned communities, for instance by means of the UNESCO Inter-Agency Platform on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y stimulating the exchange of good practices, in order to mobilize their transformative potential; and we further urge the preserv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financing for culture with the medium-term aim of allocating a progressively increasing national budget to meet the emerging needs and opportunities of the culture sector;

13.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ynergies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acknowledging the imperative of context-relevant education, which encompasses cultural heritage, history and traditional knowledge, with a view to (i) expanding learning outcomes and enhancing quality education – especially for young people – as well as the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multilingualism, arts education and digital literacy, including in school curricula and lifelong learning, as well a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i) fostering the systemic integration of culture into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cluding by valuing the contribution of all segments of society to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iii) support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e cultural sector through structural investment in public policies to foster the necessary adaptation of skills, to support employment; as well as (iv) investing in the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f museums, creative hubs, libraries, archives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in this regard *we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revised UNESCO framework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 encompass the evolutions of the cultural sector,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UNESCO National Commissions and expert networks;
14.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angible and intangible, as well as cultural expressions, notably in times of crisis, including extreme climate events and natural hazards, and condemn actions that target culture in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s and the use of cultural properties or its surroundings for military purposes, and *we support* effor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orms and standards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field, in particular the UNESCO 1954 Convention and its two Protocols (1954 and 1999), the UNESCO 1970, 1972, 2001, 2003 and 2005 Conventions, as well as the UNIDROIT 1995 Convention and the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 including by strengthening ac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s an ethical and security imperative to combat organised crime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based on the relevant UN resolutions, by bringing together all concern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and the existing technical and financial mechanisms related to the UNESCO Conven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with a view to supporting countries in their protection effort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national recovery strategies;

15. *We stress*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cultural heritage and creativity into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given its multidimensional impact on the safeguarding of all forms of cultural heritage and expressions and acknowledging the role of culture for climate action, notably through tradition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we therefore encourage* UNESCO to develop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subject, in the framework of the UNESCO 1972, 2001, 2003 and 2005 Conventions and the UNESCO 2011 and 2015 Recommendations, in synerg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ameworks and mechanis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 the United Nations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s well as the Flexible Mechanism for address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2020), with the aim of assisting Member State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extreme climate impacts affecting the entire cultural sector, which encompasses cultural heritage, including underwater and natural heritag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nd livelihoods; as well as with a view to deepen the dialogue with Member States on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of the cultural sector;
16. *We mark our commitment* to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by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1970 Convention and its associated mechanisms, and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ll relevant partners, including INTERPOL,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UNIDROIT,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s well as with the art market; and *we request* UNESCO to scale up its response on a global scale, by (i) strengthening advocacy and action concerning the impact of illicit trafficking on the memory, identity and future of peoples; (ii) encouraging the introduction of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in national legislations; (iii)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local capacities in all countries; (iv) fostering increased and effective cooperation with art market actors, notably with regard to reinforcing the cod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cultural property and preventing the acquisition of unprovenanced objects, for museums and private collectors; and (v) ensuring the engagement, mobilisation and coordination of all stakeholders, as well as the public at large, including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and online platforms, taking into account the increase in the online trade of cultural property, and supporting awareness-raising;
17. *We call* for an open and inclusive international dialogue for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cluding illegally exported property, to countries of origin under UNESCO's aegis, as well as those outside the scope of the UNESCO 1970 Convention, as an ethical imperative to foster the right of peoples and communities to the enjoyment of

their cultural heritage, and in light of the increasing claims from the countries concerned, with a view to strengthen social cohes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and *we encourage* UNESCO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egal frameworks or policie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through proactive mediation by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nd to assist countrie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in situ,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and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es, notably in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We also call on* UNESCO, as the leading UN agency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ies, to propose concrete measures and initiatives to combat this increasing phenomenon and encourage art market actors, museums and private collectors; and to adopt an updated text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Traders in Cultural Property;

18. *We are determi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to support the creative economy within Member States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2005 Convention and the UNESCO 1980 Recommendation; inter alia by guarantee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facilitating the mobility, and better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and engaging them in a participatory dialogue and *we call upon* UNESCO to assist Member States in harness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cultural sector, building on the 2017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culture-related provisions of the 2021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 view to (i) facilitate equitable access to cultural markets; (ii) design,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and regulatory frameworks, as well as action plans for the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notably by fostering a structured dialogue between all stakeholders – from the private sector, relevant NGOs and IGOs, in particular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s well as global digital platforms and internet providers; and (iii) build capacities to leverage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employment, as well as to enhance the safeguarding, promotion, digitisation, and inventorying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rough TVET and by fostering South-South and North-South cooperation;

We, the Ministers of Culture, meeting in Mexico at a critical juncture for the world at large, we commit to a reinforced multilateralism, that recognises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with an intrinsic value to enable and dri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 take the full measure of our responsibility, by requesting that UNESCO work towards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strategic directions, building on its global and specialized mandate on culture, and its normative instruments and programmes, as follows:

19. *We call on* the UN Secretary General to firmly anchor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and to integrate it as a specific goal in its own right in the development agenda beyond 2030 and, to this end, *we ask*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to launch a broad consultation involving Member States, civil society,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on the multidimensional impact of culture in our societies as a global public good, and to strengthen advocacy for the inclusion of culture in the United Nations Future Summit, scheduled in 2024, echoing UNESCO’s founding mandate to “build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rough social justice and human dignity;
20. To support the positioning of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Our Common Agenda report and the Declaration on the commemoration of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nform future cultural and public policies and strategies, as well UNESCO’s programmatic action, *we underline* the need to coordinate, strengthen and develop instruments and mechanisms for the integrated analysis,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culture and its imp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ll upon*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to develop conceptual studies on the impact of culture in all its dimensions, together with relevant data, and produce a comprehensive Global Report on Cultural Policies on a quadrennial basis, building on information, data and existing indicators provided by its Member States, notably in the framework of the periodic reports of the Organization’s complete set of normative instruments in the field of culture, as well as related programmes and statistical and indicator frameworks at its disposal;
21. *We consider* meeting at the ministerial level to measure progress, impacts, and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culture to be highly important and to this end, *we call* on UNESCO to consider convening, from 2025 onwards, a World Forum on Cultural Policies, every four years, within the appropriate existing procedures and mechanisms, with the aim of addressing priority areas for cultural policy in a constructive and inclusive dialogue of all actors concerned, to strengthen multilateral action,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strategic lines of work for UNESCO within the framework of its Governing Bodies and building on the findings of the Global Report on Cultural Policies;
22. Finally, *we request* that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develop a plan with concrete actions and timeframe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Declar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Medium-Term Strategy of the Organization and its Programme and Budget, sustain an effective dialogue with the UNESCO Member States and relevant stakeholders, and provide regular reporting to Member States on implementa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부록4]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정회원도시별 활동현황 보고 양식

202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워크숍 정회원도시별 활동현황 보고

2023. 10. 27. (금) 10:00-16:00 /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1. 기본현황

도시명	예: 00광역시, 00시
창의도시 가입년도	예: 2020년
창의 분야	예: 미식
창의도시 운영 법적 근거	
담당기관 및 부서	예: 00시청 00과(총괄), 00재단 00과(실무)
담당자/직함/이메일	
홈페이지	
사업예산 규모	(주요 예산 항목 및 규모, 공개 가능 시 자율적으로 작성)

2. 2023년 주요 활동 현황

- 2023년도 창의도시 관련 주요 활동 현황을 개조식으로 작성

3. 2023년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필요시 성과를 볼 수 있는 링크 공유)

- 2023년도 창의도시 관련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를 개조식으로 작성(외부 자문 및 평가/연구건이 있을 경우 명기)

4.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

-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활동 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

5. 기타 제언 및 사업 협력 제언

- (필요시) 기타 제언 및 (국내외 창의도시 간) 사업 협력 제언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6. 도시별 창의활동 자가 진단

※ 참고: 「UCCN 모니터링 지표 개발연구」(2022) 내 UCCN 모니터링 세부지표

※ 빨간색(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질문 내용 및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당 내용 작성 요망(내용 작성 후 빨간색 부분 삭제)

지표영역	지표항목	주요내용	참고자료
창의도시 추진·지원 체계	제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에 요구되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창의도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지침, 조례 등 행정적인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인력의 수, 전담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부 조직 운영방식의 효과성 사업에 할당된 예산액 (증감)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지침, 조례 등 수립 여부
	도시정책 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도시의 정신과 가치가 도시 전체의 발전목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창의도시 정책이 타 부문 정책(산업, 도시 개발 등)과 연계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발전목표에 반영 여부 부문정책간 연계 여부(연계사업 건수)
	정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도시 정책에 대해 창의인력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민간의 창의인력 및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CCN 주민인식조사 민관협력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부 및 횟수 시민사회 조직과의 협력 및 연계 여부
창의도시 추진성과	창의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인력(작가, 기획자, 중간 조직 등)의 육성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창의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인력의 수 창의인력 양성 예산 창의산업 일자리 수 창의산업 매출액 및 경제적 효과(관광객 수 등) 창의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 여부
	시민 문화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시민활동이 확대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행사의 수, 문화행사 참여자의 수 지역 문화 기반시설의 수 시민단체의 수 및 시민 활동가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확대, 삶의 질 제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향유율 • 취약계층 및 문화 소외지역 대상 문화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지역공동체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조사가 있을 경우) •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성화 관련 활동 • 소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수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창의도시들과의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국내 UCCN의 확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창의도시 협력사업 참여 건수(행사, 활동) • 국내 창의도시 협력사업 주최/주관 행사/프로그램의 수 (워크숍, 협업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UCC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UCCN 핵심가치의 실현과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창의도시 협력사업 참여 건수(행사, 활동) • 국제적인 창의도시 협력사업 주최/주관 행사/프로그램의 수 (워크숍, 협업 등) • 기타 국제행사의 수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기획/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편집/교열 서현숙, 오혜재, 권송, 노승민, 최준, 박예정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np.division@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디자인/인쇄 신세계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CL-2023-RP-1

이 자료집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